

# 34

## 아간의 범죄

여호수아 7:1~8:29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온 후, 사람들은 아이성 사람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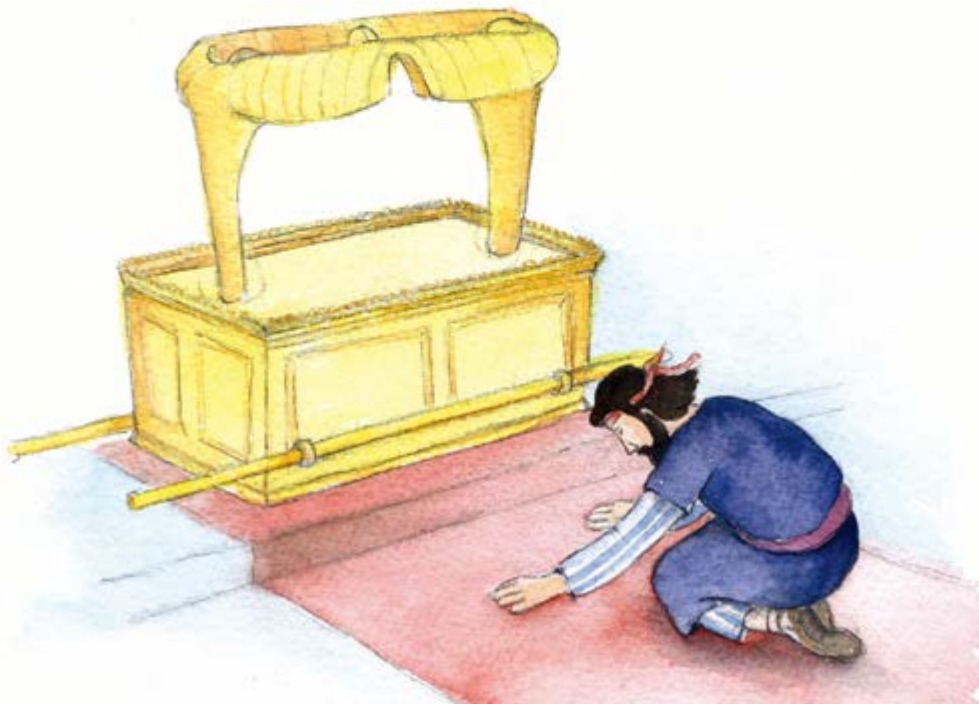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슬퍼하며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여 얻은 모든 물건은 내게 바치라고 하였는데 몰래 숨긴 사람이 있다. 그 죄를 없애기 전에는 결코 이길 수 없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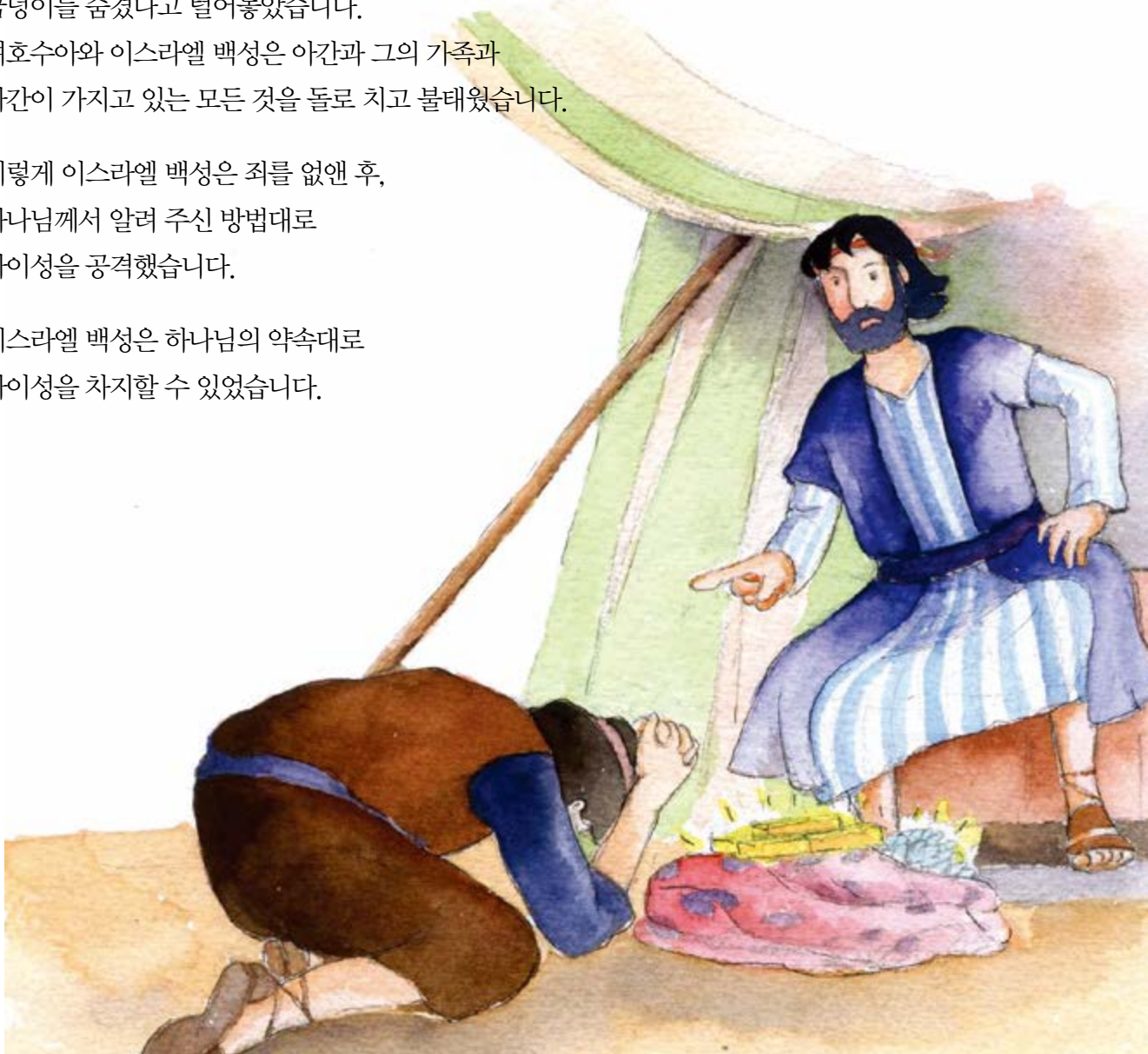
34

다음 날 아침,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제비를 뽑자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다시 유다 지파만 제비를 뽑게 하자,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금덩이를 숨겼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과 그의 가족과  
아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없앤 후,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방법대로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이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 나 한 사람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것처럼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주희의 이야기를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어린이 전도집회가 있었습니다.  
주희의 구원받지 못한 친구 다혜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다혜는 주희와 함께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다혜는 주희에게 다음부터 교회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승준이라는 친구 때문입니다.

다혜: 나는 승준이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구원받았다면서 장난만 치고 나를 괴롭히잖아. 정말 이해가 안 돼.

주희는 다혜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여러분도 승준이처럼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나요?

---

---

내 친구가 구원받지 않은 친구를 전도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의 잘못된 모습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9:12)

# 알아볼까요



## 죄를 짓지 않아요

루터는 말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죄에 대한 생각이 날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죄의 유혹과 싸울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난

선생님  
난